

## 단 체 안 내 문

1. 국제민주연대
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3. 아디 Asian Dignity Initiative
4.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5. 언론인권센터
6. 이주민센터 친구
7. 장애여성공감
8.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9. 피난처
1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1. 한국성폭력상담소
1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반도아이비밸리 219호	
홈페이지 주소	www.khis.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1)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모니터링 및 캠페인  2) 미얀마, 홍콩, 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및 인권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대 캠페인 조직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시 및 영문 보고서 작성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나현필
	전화번호	010-5574-8925
	이 메 일	khis21@hanmail.net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1) 기업과 인권문제(ESG 포함)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2)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조사 활동 및 관련 캠페인 참여 3) 미얀마, 홍콩, 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인권/평화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캠페인 참여 4)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시 및 이에 대한 영문보고서 작성 참여 5) UN 국제인권조약기구 및 인권이사회 절차 대응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활동 참여	
자원활동 요건	특별한 요건은 없으며 국제민주연대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활동 요일 및 시간	가급적 주 1회 출근 하여 5시간 활동을 권장합니다. 근무시간 관련하여 협의 가능합니다.	
요청 인원	지원하시는 분 모두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협의하여 출근 첫날 오리엔테이션 진행합니다.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없습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민주연대’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6개월간 국제민주연대에서 활동을 보조하며 관련된 자료 조사 및 행사 참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몇 차례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된 1인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사 NGO 네트워크, OHCHR 인권위원회, 인권위 공동위원회 관련 기사를 조사하고 정리하며 관련 단체들의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자료를 번역하거나 국내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에도 참관했습니다. 대부분 노동조합과 경영,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을 다루는 토론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현황 및 인권경영 관련 현황 등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2. 활동소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찾아보고, 또 정리하면서 활동가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조금이나마 갈피를 잡을 수 있게 한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지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토론 참관이나 직접 시위참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분야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실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던 저에게는 앞으로의 방향의 가닥을 잡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인권 관련된 단체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또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민주연대’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주로 국제적인 인권 탄압 및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한 전반적 내용 조사 및 관련 기사 번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9월 달에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와 유혈탄압의 내용을 정리한 영문 보고서를 작성, 이를 번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편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한국 기업의 외국 진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파악하고, 회사의 정보와 대표의 개인 이력, 회사의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한 법조문 번역 및 분석을 중점적으로 맡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주재한 한국인 기업 Monopia에서 일어난 노조 관련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사했고, 사건의 흐름과 캄보디아 법원의 판례를 번역하고 해당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 진행된 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법 관련 토론회에 국제민주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했으며, 한국민주주의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협력적 발전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DF) 주최의 글로벌 포럼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시위와 팔레스타인 지역 학살에 대한 1인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2. 활동소감

사실 인권에 대해 관심 있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인권에 대한 존중 혹은 고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음에도 초국적인 책무를 상대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전공 수업에서 글로써 배웠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간과하고 있고, 인권이라는 요소를 등한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국제민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작동방식과 활동환경, 활동방식을 정말 가까이서 보고, 또 경험하며 시민사회의 구성과 작동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같이 활동했던 분들과 나현필 실장님 등 해당 기관에 계신 분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4-2 가산한화비즈메트로 2차 606호	
홈페이지 주소	www.sharps.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산재 인정을 위한 산재 신청, 산재보험 등 제도개선, 입법 활동, 캠페인, 피해자 제보, 상담, 기록, 국내외 연대활동</p> <p>2025년 집중 의제 : 여성 노동자 건강권, 노동권, 하청/현장실습생 노동자</p>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임다운
	전화번호	010-5310-8992
	이 메 일	sharps2025@hanmail.net
<b>자원활동 상세내용</b>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올림 사무국 활동 지원 : 예산 정리, 사무국 서류, 파일 정리</li> <li>- 피해자 제보,상담 산재 인정 과정 지원 : 제보, 상담 자료 기록</li> <li>- 온오프라인 캠페인 : 기자회견, 피켓팅, SNS활동 알리기, 뉴스레터 발송(기사쓰기), 캠페인 기획 및 진행(굿즈, 선전물 만들기 포함)</li> <li>- 연구, 세미나 : 여성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설문) 기획, 진행 및 발표, 현장실습생, 하청노동자로도 가능</li> <li>- 사례 대응 활동 : 스태츠칩팩코리아 현장실습생 간독성질환 대응활동, 반도체특별법 저지 활동, 반도체여성노동자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한국여성재단 사업 진행 및 참여</li> <li>- 유튜브 : 반올림TV에서 반도체 노동자 건강권 이슈 정리,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진행</li> <li>- 국내외 연대활동 : 반올림 활동 기록 중 번역 차근히 진행</li> </ul>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건강권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분</li> <li>- 반도체, 전자산업 문제를 알고 싶고,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싶은 분</li> <li>- 토론회, 기자회견, 세미나, 캠페인 등 시민단체 활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기여하고 싶은 분</li> <li>-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언어로 기여하고 싶은 분</li> </ul>	

2025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스누게더)

활동 요일 및 시간	2025년 6월 ~ 12월 (시험시간, 방학, 휴가, 개인 일정을 감안하여 활동에 결합하시면 됩니다) 최소 주 1회 사무실,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외 온라인 등 기자회견, 캠페인 등 활동 참여
요청 인원	5명 내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자원활동가 가능한 공통 시간에 2시간 내로 진행 단체 활동 소개, 자원활동가 소개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면접이 아닌 사전 전화, 줌 등으로 인사 나눕니다. 재능이 있어 피해자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올림 활동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자원활동가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국회에서 하는 노동 관련 다양한 토론회를 방청하며 관련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이트 이전을 위해 기존 회원들을 리스트업하는 활동, 신규 교육팀 개선을 위한 회의를 위한 자료 정리 및 분석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가님이 단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을 추천해주시고 선물해주셔서 해당 도서를 읽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갈리는 날, 결정하는 기관 앞에서 시위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 활동소감**

평소 진로를 고민하며 인권 활동가의 삶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직접 체험해보며 적성에 맞는지를 여부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록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활동가의 삶은 진로에서 제외하였지만,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노동 인권 문제의 다양성과 방대함입니다. 반올림 단체는 반도체 관련한 노동 문제에 특화하여 다루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엄청 바쁘셨고, 많은 의제가 있는 것을 보며, 노동 인권 문제는 정말 방대하고, 그 세부 분야 역시 매우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중간부터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여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커, 다음에 다시 활동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해보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1) 자원활동가 교육(6/21)

- 반올림 단체의 연혁과 활동 내용 공유
-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 앞에서 태아산재 관련 1인 시위 진행

(2)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참석(7/2)

- 노동자 관점에서의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참관
-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의 법적 과제 논의
- 토론회 참관 이후 기사 작성

[https://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43343&CMPT\\_CD=SEARCH](https://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43343&CMPT_CD=SEARCH)

(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회 참석(7/4)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법제 현황과 인권 침해 현황 파악
-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

(4)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 참석(7/11)

(5)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제안’ 국회토론회 참석(7/18)

- 대리운전(플랫폼)노동자, 물류노동자,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의 현장 사례 공유
- 상병수당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6) 반올림 기록팀 참여(2024.7~현재)

- 회의 참여(기록의 목적, 기록 방향 및 인터뷰 내용 등 논의)
- 회의록 작성
-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삼성전자 자녀 산재 피해자들과 관련 활동가 등의 인터뷰를 정리한 희정 작가의 책) 독서 내용 공유
- 인터뷰이 선정(삼성전자 산재 피해자)

(7) 반올림 기자회견 참여(9/11)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장

(8) 아프면 쉴 권리 논의를 위한 인터뷰 전사 작업(2024.08.)

- 택배노동자, 방송작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인터뷰 전사

(9) 반올림 후원회원 굿즈 배송 절차 진행

- 반올림 후원회원 정리 및 후원굿즈 배송 준비



(10) 반올림 후원주점 관련 업무(2024.9.~12.)

- 홍보포스터 제작
- 후원금 회계 정리, 후원명단 정리

## 2. 활동소감

반올림 단체에서 반년 간 자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모든 직군에 유급병가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공무원이 많아서 아프면 병가를 내고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법토론회 참석과 인터뷰 전사 등을 통해 다양한 직군의 노동현황 실태를 알 수 있었고, 아파도 그냥 참고 일하거나 자신의 유급휴가를 써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병수당(시범운영 중)과 산재보험 등 노동법 관련 용어들을 많이 알 수 있었고,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발표회에 참여했을 때는 저도 학교 강의로 개설된 인턴십(여름방학 인턴십)을 수강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와닿는 주제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장실습학기 중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학교 행정상 졸업을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졸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근로를 하면서 오히려 학교와 사업장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후원회원 관련 명단을 정리하고 후원금 관련 회계를 정리하는 등의 행정 처리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일정이 있어 실제 후원주점의 일손을 돕지 못해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활동이 마무리되었지만 반올림 기록팀에 소속되어 조금 더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반올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단지 상담일지의 형식, 재해발생경위서의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아직은 첫 발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저도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로서 공인노무사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 사각재대에서 소외받은 다양한 노동자들의 삶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아디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4 가산KS타워 12층 1207호	
홈페이지 주소	www.adians.net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HING야난민 집단학살 기록사업</li> <li>- 아프가니스탄 난민 인권 기록사업</li> <li>- 로HING야난민여성 심리사회 지원활동</li> <li>- 팔레스타인 여성지원센터/트라우마힐링센터 사업</li> <li>- 팔레스타인 인권기록사업</li> <li>- 미얀마 메이크틸라 평화도서관 사업</li> <li>- 회원/후원자 소모임 활동</li> <li>- 로HING야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 시민사회네트워크 사업</li> <li>- 미얀마 민주주의회복을 위한 국내 시민사회 네트워크 사업</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 름	이동화
	전화번호	02-568-7723/010-9947-9920
	이 메 일	dh.lee@adians.net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1. 팔레스타인 지원팀 - 팔레스타인 연구팀 2025 인권보고서 제작 사업 참여 - 팔레스타인 현장지원사업(여성언론인 육성사업) 업무지원 2. 미얀마 평화도서관팀 - 미얀마 평화도서관 사업 업무지원 - 미얀마 뉴스브리프 제작 지원 사업 - 미얀마 내전으로 인한 난민캠프 인권기록 아카이빙 * 자원활동 내용은 아디 내부팀의 요청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권활동에 대한 관심과 소수자/난민에 대한 공감력이 있으신 분</li> <li>- 영어자료 검색 및 번역가능하신 분</li> <li>- 주 1일 6시간 이상 사무실 내근 및 재택업무 가능하신 분</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시간과 요일은 팀별 조절, 주 1일 6시간 이상	
요청 인원	2명(팔레스타인 지원팀 1명, 미얀마 평화도서관팀 1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활동시작 첫 번째 날 또는 첫 번째 주(활동가 전체 교육)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면접은 불필요하나 선발시 주1일 6시간 이상 근무는 필수임을 확인해주 세요^^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디’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저는 사단법인 아디에서 팔레스타인 지원팀에 배정받아 6개월 간, 주 1회 6시간가량 활동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팔레스타인 지원팀은 팔레스타인 연구팀 인권보고서 제작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으나, 기관 사정상 해당 활동이 진행되지 않아 그 대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볼 수 있었습니다.

**1. 팔레스타인 현장지원사업 업무 지원**

아디에서 지난 한 해 간 진행했던 팔레스타인 현장 지원사업(여성 언론인 육성 사업)의 연장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참여하였습니다. 재단이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2년차인 2024년의 사업 내용에 관한 내부 회의와 현지 담당자분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예산안과 사업 배경 등의 작성을 지원하고 검토했습니다. 아디에서의 첫 활동이었는데, 이를 통해 실제로 아디에서 어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현지 담당자분들과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 펀딩 신청서 작성 지원**

인권 단체에 후원 및 지원을 하는 단체가 아디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펀딩 신청을 해볼 것을 제안하여 아디의 사업 전반에 도움을 받기 위한 펀딩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이 활동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예산안 구성 및 작성, 영어 번역 등을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내용을 구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디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담당자님께서 많은 부분을 믿고 맡겨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신사업 현지 인권 실태 조사**

아디가 새롭게 진행할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쟁 지역에 관해 현지의 인권 침해 상황이 어떠한지, 특히 여성과 아동은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의 인권 단체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자체는 UN 등의 조사 내용과 기사를 요약/정리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실제로 해당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 팔레스타인 인권보고서, 로HING야 사업관련 보고서 검수 및 번역**

팔레스타인 연구팀, 그리고 로HING야 팀이 발간하는 보고서를 검수하고 번역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권보고서의 경우 오탈자 검수 정도에만 참여하였으나, 로HING야 사업관련 보고서의 경우에는 인터뷰 정리, 번역 등의 일을 맡아 했습니다. 인터뷰 자료를 보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로HING야 난민의 현 피해 상황에 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황과 뜻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 5. 행사 보조 및 참여

팔레스타인 연구팀이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서 매달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행사 진행을 돕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팔레스타인에 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 2. 활동소감

아디는 실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진행하여 분쟁 피해 커뮤니티가 회복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지원했었는데, 실제로 현지의 담당자분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사업 결과와 이후의 사업 계획 구상에 참여하며 더더욱 그 프로젝트들의 진행 과정과 방식에 관해 알아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원봉사자이니만큼 업무상 큰 부담을 주시진 않으시지만, 원하는 만큼 업무나 다양한 행사에 더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이 참여한 만큼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정해진 고정 업무가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진행해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디의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야에 열정이 넘치시는 활동가분들이 늘 따스하고 재미있게 해주시고 NGO에서의 생활, 국제개발협력 분야 등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로 고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이후에 아디에서 진행하는 행사 등에는 가능한 한 꾸준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디'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 아디 로HING야여성지원팀 10년 백서 작업 (아카이빙, 정리, 보고서 발간 작업)
- 로HING야 역사, 난민캠프 인구 정보 및 현황, 사진 자료, 회의 자료, 사업 내용 및 모델, 양,질적 데이터, 인권기록 자료, 현지 활동가 및 난민 인터뷰 자료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로HING야여성지원팀 행사 지원 (후원의 밤, 로HING야 북토크 등)
- 아디 및 현지 파트너 조직의 국내외 활동가들 면담 및 인터뷰

### 2. 활동소감

#### 1) NGO에서의 경험

- 아디는 작지만 유연하고 알맹이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인권 실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뚜렷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아디 홈페이지 (<https://www.adians.net/>)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권, 난민, 공동체 문제를 깊이 고민 하시며 바빠 움직이면서도 조직에 많은 애정을 가진 유쾌한 활동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2) 관심사 충족과 네트워킹

- 아디는 미얀마,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방글라데시 내 로HING야 난민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의 현지화 및 임파워먼트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 경우 로HING야 난민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지를 오가는 실무자들이 활동하며 축적한 정보와 데이터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활동가 분들의 관심사가 인권 - 난민, 이주, 젠더, 인류학, 외교, 법 등에 이르며 현장의 시각을 가지고 주제들에 접근하시기에 학문적으로도 유의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 아디 활동가분들과 함께 이주, 난민 이슈에 대한 공부를 이어 갈 계획입니다.

- 아디는 참여 예술인과의 협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작가, 창작가, 댄서, 다큐멘터리 감독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난민 주제에 접근하는 여러 방식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 3) 자원자 팁

- 활동 시간 관련 유연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점심식사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입니다. 사무실 출근 횟수가 많지

않고, 활동가분들도 크게 부담을 주시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무활동이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디 내 관심이 있는 활동이나, 분야를 말씀드리면 최대한 연결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아디에서 활동하는 타대학, 서울시 자원활동가 및 코이카 YP 등 또래 분들과도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디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중 개발협력분야 실무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디와 연결된 여러 분야의 활동 및 활동가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좋은 환경이라 느낍니다.

- 아디의 대표님과 활동가 대부분이 열린 마음을 지닌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사, 궁금증 등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그에 따른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주소	(0461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03호
홈페이지 주소	www.mapcast.org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igration to Asia Peace; MAP)은 난민의 삶과 존엄의 회복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p> <p>① 난민의 보호와 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민뉴스 제작과 배포, 초기정착난민을 위한 영상정보 제작</li> <li>▶상담 및 기본생활에 필요한 자원 연계</li> <li>▶한국어 교육 접근성 강화</li> <li>▶세계인권선언 제14조 캠페인</li> <li>▶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li> </ul> <p>② 난민 아동 권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취학 아동 양육비, 보육비, 의료비 지원</li> <li>▶18개월 이하 아동 양육비 지원</li> <li>▶아동보호자 정서지원</li> </ul> <p>③ 난민 건강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li> <li>▶난민정신건강증진 협의체</li> </ul> <p>④ 난민 유스 임파워먼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민 유스 임파워먼트 장학지원</li> </ul> <p>⑤ 의미있는 난민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민 실무 참여</li> <li>▶초점집단 토론</li> <li>▶난민자문위원회 구성</li> </ul> <p>⑥ 전 사회의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시민/인권/평화 교육, 난민과의 대화</li> <li>▶자원활동가 프로그램</li> <li>▶난민 조력자 역량강화 교육</li> <li>▶난민 및 비자발적 이주 전문 뉴스레터</li> <li>▶한국난민포럼</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 름	조 주 연
	전화번호	02-2038-0231 / 010-3328-0612
	이 메 일	map@mapcast.org
<b>자원활동 상세내용</b>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p>① 난민 정보접근성 제고 사업 &lt;난민뉴스&gt; 지원</p> <p>▶ 활동목적: 난민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난민뉴스를 다국어로 제작하여 단체 웹사이트 및 SNS, MAP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배포합니다.</p> <p>▶ 활동내용: 뉴스 콘텐츠 리서치 및 작성, 번역 또는 번역봉사자 연계, 웹포스터 디자인</p> <p>② 난민 통합지원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난민조력자/난민공동체 교육 사업</p> <p>▶ 활동목적: 상담 자원 및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민 통합지원 활동가 교육 및 난민공동체 대상의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p> <p>▶ 활동내용: 난민보호 상담, 자원연계, 사례관리</p> <p>③ 난민 아동 양육비 · 보육비 ·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지원</p> <p>▶ 활동목적: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난민 가정의 요청을 접수하여 양육비 · 보육비 · 의료비를 지원합니다.</p> <p>▶ 활동내용: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난민 가정/보육 기관/단체 간 소통 지원</p> <p>④ 난민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코디네이팅</p> <p>▶ 활동목적: 난민의 상담요청을 접수하여 적시적절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상담센터나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 통·번역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p> <p>▶ 활동내용: 심리상담센터 및 의료기관 연계, 일정관리, 난민/심리상담센터 및 의료기관/단체 스태프 간 소통 지원</p> <p>⑤ 난민 청소년·청년 역량강화사업 지원</p> <p>▶ 활동목적: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통해 난민 청소년 및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장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p> <p>▶ 활동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 지원</p> <p>⑥ 난민·비자발적 이주민 전문 뉴스레터 &lt;디스플레이드&gt; 제작</p> <p>▶ 활동목적: 난민 및 비자발적 이주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lt;디스플레이드&gt;를 발행합니다. 비자발적 이주의 영역에서 난민 인권 친화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소식을 전달합니다.</p>	



	<p>▶ 활동내용: 콘텐츠 리서치 및 작성/제작</p> <p>⑦ 난민과 함께하는 평화인권교육 &lt;난민과의 대화&gt; 코디네이팅</p> <p>▶ 활동목적: 난민이 학교, 서점,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삶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 활동은 사회의 편견에 맞서고, 난민과 시민이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의식을 높이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둡니다.</p> <p>▶ 활동내용: 교육 원고 및 일정 관리, 통역 또는 통역봉사자 연계, 프로그램 홍보</p> <p>⑧ 난민 조력자 역량 강화 &lt;피스아카데미&gt; 운영 지원</p> <p>▶ 활동목적: 난민 당사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과 비난민 난민보호 실무자 역량강화 웨비나를 진행하여 난민 조력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난민 및 난민공동체와의 협력 및 연대의 기반을 마련합니다.</p> <p>▶ 활동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 지원, 웨비나 운영 기술 지원</p> <p>⑨ 난민 대상 기초 한국어교육 &lt;우리평화한국어학교&gt; 운영 지원</p> <p>▶ 활동목적: 난민 대상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난민 맞춤형 전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여 난민의 임파워먼트를 도모합니다.</p> <p>▶ 활동내용: 수업일정 관리 및 난민참가자/교육봉사자/단체 스텝 간 소통 지원</p> <p>⑩ 대외홍보 (Public Relation)</p> <p>▶ 활동목적: 단체 활동 및 이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식을 시민과 공유하여 연대를 확대해나갑니다.</p> <p>▶ 활동내용: 콘텐츠 기획, 업로드 및 관리</p>
<p>자원활동 요건</p>	<p>① 난민 정보접근성 제고 사업 &lt;난민뉴스&gt;</p> <p>▶참여요건: 영어/제2외국어 구사, 리서치 및 글쓰기 능력, 웹자보 제작(canva 등) 능력</p> <p>② 난민 아동 양육비 · 보육비 · 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p> <p>▶참여요건: 영어 구사</p> <p>③ 난민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p> <p>▶참여요건: 영어 구사</p> <p>④ 난민 청소년·청년 역량강화사업</p> <p>▶참여요건: 영어 구사</p>

	<p>⑤ 난민과 함께하는 평화인권교육 &lt;난민과의 대화&gt; ▶참여요건: 영어 구사</p> <p>⑥ 난민·비자발적 이주민 전문 뉴스레터 &lt;디스플레이스드&gt; 및 옹호/대회홍보 ▶참여요건: 리서치, 글쓰기, 온라인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능력</p> <p>⑦ 한국난민포럼 ▶참여요건: 영어 구사</p>
활동 요일 및 시간	주1회 활동, 월~금, 10:00~18:00
요청 인원	활동분야 당 1~2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 활동이 시작되는 첫 주에 단체 이해 및 활동 소개를 위한 자원활동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날짜 미정)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p>▶ 자원활동가의 관심분야와 실제 참여활동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 진행을 희망합니다.</p> <p>▶ 자체 양식의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p>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난민 연사들과 한국인 시민 청중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난민과의 대화’ 행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였음.  
-‘난민과의 대화’ 행사는 중고등학교 및 교회 등 각종 단체에서 진행되며, 자원활동가는 행사 준비 및 통역 등을 담당함.  
-자원활동 단체에서 기타 사무 등도 보조하였음.

**2. 활동소감**

-‘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사연을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목격하면서 난민 의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역량에 대해 희망을 품게 되었음.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함으로써 난민 의제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도 심화하였음.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 난민 및 비자발적 이주민 전문 뉴스레터 ‘디스플레이즈드’ 작성 및 발행.
- ‘일있슈’ 발행 : 난민 및 이주민 관련 소식 구성원들에게 정리해서 제공.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공식 SNS 인스타그램 관리. 카드뉴스 제작 및 발행.
- Refugee Story : 난민 인터뷰 기사 작성.
- 단체 활동 및 행사 홍보 담당.

**2. 활동소감**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을 하던 시절, 스누게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난생처음으로 이주민으로 살며 이주민의 삶에 관심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이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 같은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인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에 지원했다.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다. 특히 디스플레이즈드 아이템 회의를 하면서 대표님의 ‘우리는 왜 안 좋은 소식만 전해야 해요?’라는 말이 인상적으로 남았다. 우리 세상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나쁜’ 소식들만 집요하게 전하고 있었다. 필요한 보도지만, 그런 보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가 빠져 있었다.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됐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감동 받았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다는 게 큰 장점이다. 정말 ‘자원’ 활동이라는 말이 딱 맞았다. 단체에 출근하는 날이 기다려졌다.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어떤 단체에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MAP을 적극 추천한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6월 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맵의 아동보호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보호팀에서 제가 참여한 사업은 크게 5개 정도 있습니다. 아동, 난민 관련 기관이나 공익 재단과 연계하여 진행한 보육비 지원 사업이 네 가지, 어머니들의 양육 시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원 아동들의 가정과 보육 기관을 대상으로 월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연 1회 수행해야 하는 가정 방문에도 몇 번 동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난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팀에서도 대상이 난민 아동일 경우 업무를 몇 가지 보조하였으며, 아동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달마다 영수증을 수합하는 등의 기타 서류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2. 활동소감**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작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운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활동내용에 언급했던 유선 모니터링의 경우 여러 지원 사업을 합해 20개가 넘는 가정과 15개가 넘는 보육 기관에 전화하는 업무였습니다. 기존에 친근한 관계가 아님에도 개인적인 상황까지 묻고 답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곤란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모니터링에서 난민의 난처한 상황, 괴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분노하고,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스누게더에 세 번째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이 지금까지 했던 자원 활동 중 가장 많은 업무를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에 적응하고 나서는 담당하는 업무와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행사, 단체 외부의 토론회 등에도 참석할 기회를 주어 업무 내외로 국내의 난민을 만나거나 그들의 상황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활동이 끝나며 지금까지 유선으로 또는 실제로 만나왔던 난민 가정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을 때 아쉬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서로의 삶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활동 기간이 끝났지만 맵에서 일하던 당시, 어떤 활동가 분이 맵의 사람들이 좋다는 후기를 보고 자원활동을 지원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때에는 한참 적응하던 시절이라 몰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말에 너무나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에 한 번 나가는 자원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일원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활동가 분들에게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이유로 이 단체에서의 자원활동을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민 문제는 너무 어렵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너무 캄캄해 출구가 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활동한 기간 동안 저는 희망을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고 버틴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은 난민 가정도 보았고, 난민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모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의 활동가 분들도 만나 새로운 동기와 희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와 쉽지 않은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들에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5길 28, 605호(서초동, 브이샤르망빌딩)	
홈페이지 주소	www.presswatch.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 언론의 허위 보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미디어이용자의 권익보호운동을 목표로 창립되었습니다.</p> <p>○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민·형사 소송구조</li> <li>- 일반 시민 및 언론 종사자 대상 미디어 인권교육</li> <li>- 언론 및 미디어와 관련한 각종 정보공개청구</li> <li>- 언론보도 및 미디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li> <li>- 언론-미디어 관련 법 개정 관련 활동 등</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 름	진승현 사무처장
	전화번호	02-591-0542 / 010-9280-6013
	이 메 일	presswatch.korea@gmail.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li> <li>-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 참여(유튜브 콘텐츠, 댓글 모니터링 등)</li> <li>- 언론인권센터 홍보</li> <li>-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미디어 관련 토론회 홍보 및 정리</li> <li>- 언론 관련기관 정보공개청구 업무 및 분석</li> <li>- 기타</li> </ul>	
자원활동 요건	<p>○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분을 적극 환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보도 및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li> <li>- 언론 또는 미디어 산업 관련 진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li> <li>- 현 미디어 환경 속 다양한 인권 의제(여성, 노동, 환경, 장애 등), 언론 윤리, 미디어 윤리 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li> <li>- 언론 및 미디어 관련 법 또는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li> <li>-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li> <li>-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참가자와 조율	
요청 인원	5명 내외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참가자와 조율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없음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p>1. 미디어 인권에 관한 스터디 및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lt;인권보호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보완점&gt;</li><li>- &lt;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언론피해 구제법의 쟁점&gt;</li><li>- &lt;OTT 환경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심의제도변화와 전망&gt;</li></ul> <p>위 세 주제에 대해서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로 계신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신 이후, 관련 주제에 대한 스터디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언론 인권 분야의 활동가이면서 동시에 관련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함께해서, 현장 지식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도 저희에게 관심 분야를 여쭙봐주시고 유동적으로 진행했습니다.</p> <p>2. 언론인권통신 및 미디어스에 언론 인권 이슈에 관한 칼럼 기고</p> <p>언론인권센터의 보도자료가 실리는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칼럼 기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칼럼을 미디어스라는 언론에도 [스누게더의 렌즈] 이름으로 보도해주셨습니다. 저는 ‘법정 밖의 재판,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방인’ 서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유명인에 대한 언론의 예단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p> <p>3. 언론 보도와 관련된 인권 지수 개발 및 주요 언론사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p> <p>교수님께서 연구하시던 언론 보도에 관한 인권 지수를 함께 개발하는 과제가 이번 봉사활동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교수님의 사정으로 연구가 지연되면서 관련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p> <p>4. 언론피해 소송관련 미디어피해구조본부 회의 참관</p> <p>언론인권센터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구조본부의 회의를 참관하도록 해주셨습니다.</p>
---

**2. 활동소감**

<p>스누게더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분들과 대화하며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체득할 것을 기대했는데, 언론인권센터 봉사의 경우에는 현장성과 더불어 전문성까지 갖춘 활동이었습니다. 스누게더 담당이신 상임이사님이 학계에 계시기에, 언론 인권과 관련해서 더 깊이 있는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항상 저희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주시고 활동 내용과 일시를 유동적으로 정하여 배려해주시는 점도 좋았습니다. 가장 주된 행사였던 언론 인권 지수 모니터링 사업이 미뤄져서 아쉬웠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 활동을 통해서 함께 진행해보고 싶습니다.</p>
--



##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7월 1일 첫 모임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8월 동안은 미디어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인권보호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보완점’,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각종 윤리강령과 보도준칙’, ‘OTT환경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심의제도 변화와 전망’ 등에 대해 이사님과 이사장님의 강연을 듣고 미디어의 인권실태에 대해 자원활동가분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각자 낱짜를 정해 돌아가며 미디어 인권에 대해 특정 의제를 선정해 의견을 정리하여 칼럼을 쓰고 언론인권통신과 미디어스라는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2. 활동소감

언론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스누게더 활동은 미디어 인권 실태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지원하게 되었고 7월 설레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후 이사님께 미디어 인권에 관한 준칙들과 언론인권센터에서 다루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방송 심의에 대해 현재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과거의 심의기구, 심의의 필요성, 해외 국가들의 심의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심의의 이유부터 절차까지 상세히 알 수 있어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와 인권을 위한 미디어 기구, 장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매주 미디어 인권에 대한 주제에 대해 다른 자원활동가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미디어 인권에 대한 관점을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각자 관심을 갖고 있는 미디어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모르고 있던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원 활동가분들의 열정을 통해 저 또한 동기부여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첫째는 활동 시간입니다. 언론인권센터 스누게더는 다른 스누게더 기관과 달리 처음 지원할 때부터 모임이나 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7명의 스누게더 참여자가 있었고 담당해주시는 이사님까지 8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활동 특성상 여러 자원활동가가 모여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했는데,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보니 활동을 자주 진행하기도, 모든 참여자가 모이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한번도 모이지 못하고 각자 칼럼을 써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 처음에 계획했던 미디어 인권 지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조금 더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도, 함께하는 자원 활동가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언론인권센터에서 스누게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처음 나눴던 스누게더 참여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려던 의지가 끝까지 실현될 수 있으면 더 뜻깊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다.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인권을 위해 저의 노력이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인권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정기 모임에 참석하면서, 미디어 인권을 대주제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보도 사례들을 조사한 후 각 사례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토의하고, ‘인권보호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보완점’,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언론피해 구제법의 쟁점’, ‘OTT환경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심의제도 변화와 전망’ 등을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활동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언론인권센터 공식 발행 통신에 실리는 칼럼을 작성하기로 하여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다편이크와 미디어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하였으나, 업로드 일정이 밀려 게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언론 보도와 관련한 인권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언론사를 도맡아 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센터 측의 미응답 및 소통 부진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 활동소감

단순히 비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 센터에 방문하여 센터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 좋았고, 스터디와 칼럼 등을 통해 언론 보도에서 어떤 표현들이 문제가 되는지, 언론중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방송영상콘텐츠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심의되고 있는지 등 평소 접해보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다만, 보도 모니터링 활동이 무산되는 등 센터의 바쁜 일정과 상황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7월 1일: 첫 미팅(ZOOM 화상 회의)
7월 11일: ‘인권보호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보완점’ 스터디
7월 22일: 언론피해소송관련 미디어피해구조본부 회의 참관(본인 미참여)
7월 25일: ‘인격권 침해 피해 구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언론피해 구제법의 쟁점’ 스터디
8월 1일: ‘OTT 환경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심의제도 변화와 전망’ 스터디
8월 29일 언론인권센터 간담회
9월~10월: 개인별 언론인권통신 칼럼 1개 작성

2. 활동소감

<p>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의 실태와 피해자의 인권 회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을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강의실을 넘어 현장에 계신 실천가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활동 횟수가 적고, 활동도 일방향이었던 강의식으로 진행된바,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나 지식이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자원활동 단체 관계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어떤 자원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업무를 저희에게 주셔야 할지와 관련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고, 얼마 가지 못해 활동 기간이 흐지부지 종료되어 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학우분들 역시 안내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리 잡은 일정으로 인해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본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인권센터 측에서 연계 단체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주시면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우분들에게도 가령 스누게더 활동 병행 시 몇 학점 이내로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사전 안내가 있으면 활동 참여를 더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언론인권센터에서의 봉사 활동은 언론과 인권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깊이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의 시작은 제공된 스터디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문윤리강령, 인권보도준칙,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등 언론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학습하며, 언론 보도의 책임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스터디 이후에는 각자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칼럼을 작성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이 던지는 사회적 함의를 탐구하고 제 시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서 언론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대중의 비판을 유도한 사례를 다루며, 이를 통해 언론이 추구해야 할 공정성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논의했습니다. 정리하면, 칼럼 작성은 저 스스로 언론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고민해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2. 활동소감**

언론인권센터에서의 봉사 활동은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과정을 넘어, 언론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깊이 고민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언론의 윤리 강령과 법적 규제를 학습하면서, 저는 언론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짊어진 중요한 주체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며, 공정성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칼럼 작성 과정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며 저만의 시각으로 이를 풀어내는 과정은 큰 도전이자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이제 저는 처음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나, 언론 인권 문제에 대해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언론인권센터 자원활동은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방학 중에는 주로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센터 이사님과 함께 언론인권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센터에서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회의 참관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이사님께서 준비해주신 피피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언론 인권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사님께서 저희 학기 중 스케줄을 고려해 주셔서 대면 활동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원활동가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언론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칼럼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칼럼은 언론인권센터 통신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인권지수를 활용한 언론 보도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이사님 일정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ㅠㅠ

### 2. 활동소감

우선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스누게더>라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누게더 활동은 학교 밖 현장에서 인권 보호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제 전공인 언론정보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인권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했고, 활동을 하며 가장 접촉이 많았던 센터 이사님께서 타고에서 제 전공분야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나누며 여러모로 배워가는 점이 많았습니다.

언론인권센터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언론 인권 관련 소송 사례와 진행 현황을 가까이에서 들어볼 수 있었던 변호사 회의 참관입니다. 회의에서 공익변호사 분들의 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본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칼럼을 작성하여 센터 통신에 발행한 것입니다. 센터 이름으로 글을 낸다고 생각하니 약간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통신과 <미디어스> 기사가 발행된 것을 보니 무척 뿌듯했습니다 (나름 첫 언론 데뷔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ㅎㅎ) 이사님께서 자원활동가들의 기존 관심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을 글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점이 많았던 언론인권센터 자원활동이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경우 단체의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센터의 구성원 수도 적고, 물리적인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원활동가들에게 신경을 충분히 써 주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사님께서서는 언론인권센터 이사와 대학교 교수직

을 겸업 중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수업으로 바쁘셔서 각자 칼럼을 작성하는 것 외에는 어떤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스누게더> 수기에는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주된 활동으로 꼽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스누게더에서는 이 주된 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물론, 재차 강조하자면 자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이사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센터 업무 분배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봅니다. 다음 스누게더에도 언론인권센터가 자원활동가 모집을 한다면, 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분께서 스누게더 활동가들을 담당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언론인권에 대해 배우고 현시대의 사회적 이슈들을 언론인권에 연관지어 토론을 했다. 활동을 하면서 인권 자체와 연관이 있는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글을 작성했다. 봄 활동에서 저는 당시 큰 이슈가 된 딥페이크 사건과 텔레그램에 관해 글을 작성하여 언론인권센터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2. 활동소감

활동을 하면서 본래 배울 수 없던 언론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사회적 이슈를 평소보다 더 깊게 고민을 하고, 그 이슈가 인권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다만 본 활동에 같이 봉사를 하는 인원이 많아서 다 같이 시간을 맞추어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을 아주 알차게 하지는 못한 것 같다.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7, 3층	
홈페이지 주소	www.chingune.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li> <li>- 한국어학습을 중심으로 검정고시 등 학교진학을 위한 학습지원</li> <li>- 문화예술동아리, 각종 적응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 진행</li> </ul> </li> <li>○ 이주민센터 친구(투소프카 위탁운영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 무료 법률지원 활동</li> <li>- 이주인권 인식개선, 혐오차별 인식개선 등 인권교육 활동</li> <li>-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연대활동 및 연구용역 활동</li> </ul> </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신혜영
	전화번호	070-7712-7191 (010-9902-2830)
	이 메 일	tusovka7942@naver.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멘토링(한국어, 검정고시).</li> <li>- (선택)이주민센터 친구의 법률지원, 인권교육, 연대활동 업무지원</li> </ul> <p>※ 모든 활동은 사전 면담 및 업무내용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학습멘토링 업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p>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이주배경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li> <li>- 이주인권 및 혐오차별해소, 사회통합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li> <li>- 소규모 비영리법인에서의 진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 우대</li> <li>- 청소년 멘토링 경험이 있으신 분 우대</li> <li>- 중국어 가능한 분 우대</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단체 자원활동프로그램 필수 시간을 충족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요일 및 시간은 일정 협의 후 결정</li> </ul>	
요청 인원	8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활동을 시작 하는 첫날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활동가의 관심 분야와 단체 활동내용 및 실제 봉사활동 내용 사이의 조율을 위해 사전면접 진행을 희망합니다.</li> <li>-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로 자유롭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li> </ul>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이주민센터 ‘친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습 멘토링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수업의 내용은 기초 한국어부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초 한국어 독해 수업과 중학교 검정고시 수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보니 수업에 여러 노력이 필요하고 언어적인 장벽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열정적이고 착해서 활동이 매우 즐겁습니다. 담당자분께서도 잘 챙겨주시고 수업 일정도 최대한 유동적으로 조절해주십니다.

**2. 활동소감**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진행한 학습 멘토링은 이전까지의 일반적인 학습봉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때로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수업 내용의 전달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어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줘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검정고시에 나오는 사회 과목의 ‘상대주의’와 같은 개념을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영어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한국어를, 저는 중국어를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함께 노력하다보니 서로 각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워가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중학교 검정고시 영어를 수업했는데, 한국어와 중국어를 서로 동시에 사용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많이 어려울 아이들이 꾸준히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더 열심히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제가 중국어를 조금 더 잘했다면 -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이라는 후회가 남으면서도, 저에게도 학생에게도 매우 뜻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사단법인 친구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검정고시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전쟁, 부모의 직업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청소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를 늦은 나이에 배우기 시작하는 점, 한국 교육과정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한국 사회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어 실력을 높여주고 검정고시 공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 활동소감

대학 입학 후 학원 조교, 과외, 멘토링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을 만났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종류의 청소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프랑스,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구글 번역과 파파고를 켜 가며 대화를 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늦은 나이에 처음 접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성장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이주민센터 친구 내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멘토링(한국어 교육 및 검정고시 대비)을 진행했습니다.

2. 활동소감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학습 멘토링을 하는 선생님이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주민 인권 신장을 위해 발로 뛰시는 변호사님들과 활동가님들 모습을 보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장애여성공감	
주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상가 101동 411호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s://wde.or.kr/">https://wde.or.kr/</a>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장애여성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p> <p>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1998년에 창립하여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장애여성 인권사안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사업, 연구정책활동</li><li>2.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 및 피해자 지원사업</li><li>3.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사업</li><li>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장애여성 독립생활지원사업</li><li>5. 장애여성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사업</li></ol>	
자원활동 담당자	이 름	유진아
	전화번호	02)441-2384
	이 메 일	wdc214@gmail.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제 NGO 단체의 실무활동 경험 및 지원</li><li>● 단체 진행 프로그램 보조진행</li><li>● 장애여성 인권증진 활동 및 일상지원</li><li>● 장애여성인권상담 관련 자료 취합</li><li>●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활동 지원</li></ul>	
자원활동 요건	장애여성인권운동을 지지하며 자원 활동을 통해 동참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	
활동 요일 및 시간	요일, 시간 학생과 조정 가능 (되도록 월/금 외에 요일을 선호함)	
요청 인원	1인, 장애학생 우선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2025년 6월 중,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 장애여성운동의 역사와 안내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s://www.womenandwar.net/">https://www.womenandwar.net/</a>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일본군 성노예제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 등 여성 인권 보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억하고 교육하며 활동하는 공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 및 운동사 전시 및 교육</li> <li>2. 관련 아카이브 수집 및 제공</li> <li>3. 국내외 여성평화인권 연대활동</li> <li>4. 연구조사 및 콘텐츠 개발</li> </o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이지영
	전화번호	02-392-5252/010-2385-3821
	이 메 일	museum@womenandwar.net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 인포데스크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객 응대 (티켓 설명, 오디오가이드, 관람동선 안내)</li> <li>- 뮤지엄샵 운영,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li> </ul> </li> <li>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생존자 관련 외부 보도자료 수집, 정리</li> <li>- 해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연구동향 분석</li> </ul> </li> <li>3. 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 기록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자기록물 스캔, 자료 목록화</li> <li>- 자료 번역 (영어, 일본어, 독일어 등)</li> </ul> </li> </ol>	
자원활동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책임감 있는 자세</li> <li>2. 본인 활동 가능 시간을 명확히 표시 요망</li> <li>3. 본인이 원래 지원한 분야 외에서의 활동 가능성 있음</li> </ol>	
활동 요일 및 시간	화요일-토요일, 09시~13시, 14시~18시 최소 주1회, 4시간 이상	
요청 인원	5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1차 : 6월28일(토) 오전 10:30 2차 : 7월 5일(토) 오전 10:30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단체내 오리엔테이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연락 후 따로 일정 조정 가능함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1. 박물관 인포센터 활동

- 관람객 응대
- 오디오 가이드 사용법 및 티켓 설명 등 관람방법 안내 : 박물관 특성상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때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대부분 영어로 관람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뮤지엄샵 운영 및 제품 제작 : 뮤지엄샵에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작법을 배워 주기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2. 박물관 SNS 활동

- 주기적으로 박물관 SNS(ex. 인스타그램)에 박물관 홍보·일상·아카이빙 관련 게시물을 한국어, 영어로 제작하여 업로드했습니다.

3. 박물관 관련 번역 활동

- 박물관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에 대한 번역 활동(한국어 -> 영어)을 진행했습니다.

**2. 활동소감**

스누게더를 통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자원 활동을 하며 보다 넓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 인종, 나이의 관람객들을 만나 박물관에 오게 된 계기, 박물관 전시를 보고 느낀 점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어 깨달음과 시야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활동가분들의 평소 업무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그간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혹은 현재 존재하는 크고 작은 인권 문제들에 대해 제가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쟁 속 인권 문제, ‘약자’의 인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박물관 활동가분들이 힘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의 진로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은 저 스스로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그 일이 수호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자원활동 경험은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보다 넓은 세상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피난처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2층 피난처	
홈페이지 주소	www.pnan.org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난민 법률안내</li> <li>- 난민인정절차 조력 및 권리보호</li> <li>- 국제 난민 생활지원(생계 심리 의료 숙소 등등)</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이진하
	전화번호	010-5493-4475
	이 메 일	jinha9980@gmail.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p>1) 난민지원 관련 통번역 활동(영어, 불어, 아랍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과의 면담 시 통번역</li> <li>- 난민 박해상황 관련 정보 수집</li> </ul> <p>2) 난민 본국 정황 및 난민 관련 리서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신청 지원을 위한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li> <li>-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li> </ul> <p>3) 난민 및 단체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지 및 카드뉴스 제작</li> <li>- 홍보영상 작업</li> <li>- 웹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li> </ul> <p>4) 난민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초등학교 대상 학습지도</li> <li>- 난민 초등학교 대상 놀이 혹은 예체능 활동 기획 및 진행</li> </ul>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낯선 타인과의 소통을 즐기시는 분(특히, 외국인)</li> <li>- 제2외국어(불어, 아랍어 등) 구사에 능한 분 우대</li> <li>- 난민 및 국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li> <li>- 국제정치사회 인권 및 법률에 관심이 있는 분</li> <li>- 컴퓨터 작업 및 디자인 작업 가능하신 분 우대</li> <li>- 아동 보호 및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li> <li>- 기독교 가치관에 거부감이 없는 분(종교 여부 무관)</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요일: 평일(월~금) 중 협의 후 결정 시간: 10:00~18:00 중 협의 후 결정	
요청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별 각 1인 이상</li> <li>- 중복 지원 및 활동 가능</li> </ul>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자원활동 첫날 한시간 내외 예정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오리엔테이션과 면접 병행	





자원활동 요건	비정규노동 현장에 대해 궁금한 분,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는 실제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분, 비정규노동 문제에 공감하고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 등
활동 요일 및 시간	2025년 7월 ~ 12월 7~9월 : 비정규노동 관련 현장 세미나, 연대 등 9~11월 : 비정규노동자 현장 인터뷰 및 정리 12월 : 결과 발표회 구체적인 시간은 참여자원활동가와 협의하여 결정 (주 1회 / 약 6시간)
요청 인원	N명 (정하지 않음)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오리엔테이션 진행 (협의하여 날짜 확정하여 진행 예정)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필요 시 추후 활동증명서 발급 가능  비정규노동 운동, 관련 정책 연구, 노동 현장 방문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흥미롭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a>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활동(역량강화, 의료, 법률, 기타)</li> <li>-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 운영</li> <li>- 성폭력 관련 대중 및 전문가 대상 교육 진행, 관련 연구 및 간행물 출판</li> <li>- 성폭력 대책위 및 의제 캠페인 활동</li> <li>- 성폭력피해생존자, 여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감시 및 제언</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박수민
	전화번호	02-338-2890 / 02-6383-6604(직통)
	이 메 일	<a href="mailto:f.member@sisters.or.kr">f.member@sisters.or.kr</a>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활동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주요 관심사/역량과 조정하여 세부업무 선정 (예시 업무 : 성폭력 관련 토론회행사 등 참석, 리뷰 작성, 언론에 난 성폭력 관련 기사 통계 및 분류, 문서정리, 아카이빙, 활동 영상 편집, 기타 단체운영에 필요한 업무보조 등)</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제정 30주년 맞이 기초자료 생산 및 토론회 실무 준비</li> <li>- 제시된 업무 외 자원활동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담소 업무가 있을 경우,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li> </ul>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 섹슈얼리티, 차별과 폭력 문제에 관심 있고 향후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해보고 싶은 분 우대</li> <li>- 본인만의 역량, 기술을 소개해주실 수 있는 분</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금 중 주 1일 10:00-17:00.</li> <li>- 정해진 시간 외 상담소 행사 참여할 경우 활동시간 조정 가능</li> </ul>	
요청 인원	2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출근 첫 날 전체 활동가와 인사 나눔 및 팀별 활동 내용 소개,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준하여 상담소 활동 중 알게 된 성폭력 피해생존자 관련 정보는 일체 엄금을 당부합니다.	

2025년도 6~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65길 27-1 코콤빌딩 2층	
홈페이지 주소	www.wmigrant.org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이 시민의 기본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위해, 이주여성도 동등하게 즐기는 세상을 위해 ‘이주여성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이주여성 인권운동단체입니다.</p> <p>&lt;주요 슬로건&gt;  “거침없이 세상을 넘나드는 여성들”  “이주여성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함성”</p> <p>&lt;주요사업&gt;  1. <u>인권증진 및 안전망 확대 사업</u>  - 이주여성 인권지원과 이슈 대응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 의료지원  -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 역량강화  2. <u>정치 사회 변화 사업</u>  -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정책 대응  - 이주여성 관련 연구와 정책의제 구성  - 이주와 젠더, 소수자 의제 시민사회 연대  - 인식전환 캠페인, 대중교육, 언론대응  3. <u>역량강화 사업</u>  - 이주여성 인권옹호 전문가 양성 교육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발굴과 인권활동  - 이주와 젠더 세미나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4. <u>시민사회 소통</u>  - 연간 활동보고서 발행  - 정기 뉴스레터 발행  - 이주여성 인권 온라인 콘텐츠 발행  - 이어인터 공식채널 운영</p>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남지은
	전화번호	010-5516-0456 / 02-3672-8988
	이 메 일	<a href="mailto:wmigrant@wmigrant.org">wmigrant@wmigrant.org</a>

<b>자원활동 상세내용</b>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대응 및 사회변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종차별적 사회문화 모니터링</li> <li>- 성평등, 차별금지 문화 확산 캠페인</li> <li>- 다양한 말로 사회변화를 만드는 다국어 캠페인</li> </ul> </li> <li>○ 정책 연구 및 이주여성 세력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가사노동자와 돌봄 이슈 관련 Advocacy 활동</li> <li>- 이주여성 인권지원과 상담의 역사 아카이빙</li> </ul> </li> <li>○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여성 활동가 세미나(활동가 및 회원 소모임/세미나 등)</li> <li>- 이주여성 활동가 네트워킹(교육, 토론 및 워크숍 등)</li> <li>- 이주여성 자녀 독서활동 지원(독서모임 등)</li> </ul> </li> </ul>
<b>자원활동 요건</b>	○ 주 1회 4시간 이상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
<b>활동 요일 및 시간</b>	○ 기간 : 6월 ~ 12월 주 1회 ○ 일정 : 평일 13:00-18:00
<b>요청 인원</b>	2명
<b>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b>	활동 첫날(6월 중순)
<b>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면접 x</li> <li>- 통역 또는 번역 가능 언어를 추가로 파악 요청드립니다.</li> </ul>

[붙임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요 채널

홈페이지	<a href="http://www.wmigrant.org">www.wmigrant.org</a>	
인스타그램	<a href="https://www.instagram.com/wmigrant">www.instagram.com/wmigrant</a>	
페이스북	<a href="https://www.facebook.com/wmigrant">www.facebook.com/wmigrant</a>	
뉴스레터	<a href="http://wmigrant.stibee.com">wmigrant.stibee.com</a>	

[붙임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최근 활동 소식

2025-01 “주권자 아닌 이 땅의 모든 이주여성이 페미니즘과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p>광장을 방석삼아, 깃발을 담요삼아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지 4개월, 겨울을 붙잡아두고 싶은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봄만 오고 있습니다.</p> <p>계절만 와서는 안 될 일입니다.</p> <p>모두의 일상을 빼앗아간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2025년의 봄으로, 이 계절은 그렇게 왔다고 기억되길 바랍니다.</p>
<p>&lt;주요소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남지역 대형 산불 및 미얀마 지진 희생자 추모성명</li><li>✓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li><li>✓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3년 재위탁</li><li>✓ 인종차별 철폐 행동 -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행사,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활동</li><li>✓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3월, 세계 여성의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li></ul> <p>&lt;뉴스레터 링크&gt;</p> <p><a href="https://wmigrant.stibee.com/p/102/">https://wmigrant.stibee.com/p/102/</a></p>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하 이여인터)에서는 주로 행정 보조, 캠페인 등 사회 변화 활동, 독서 및 토론 세미나의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해 아카이빙하고 향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했는데, 2024 하반기에는 이주가사노동자와 돌봄 이슈에 주목했습니다. 12월에는 계엄 사태 및 그 이후 정국에 대응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설명 자료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플리마켓이나 굿 판매 등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업무를 함께 했으며, 매주 독서 및 토론 세미나를 통해 이주여성 인권 활동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3. 활동소감

인권단체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체 활동을 운영하고 참여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더 넓고 깊은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를 만나기도 하고, 의제에 깊은 지식을 가진 활동가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 그리고 이주여성을 둘러싼 각종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사회 속에서 무얼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별칭과 평어를 사용하였고, 선배 활동가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전혀 위계적이지 않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p>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했던 일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주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및 정책 대응</li><li>2. 이주여성인권센터 행사 지원</li><li>3. 이주여성인권센터 홍보</li><li>4. 이주여성인권 관련 책 세미나</li></ol> <p>첫 번째, 관련 이슈 및 정책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시기에는 아리셀 참사,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주여성 대상 n번방 사건,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관련 예산 삭감, 유튜브에서의 외국인 혐오 조장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이슈들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해 정리하고, 여성가족부 2025년 예산안 등의 관련 정책 자료를 검토해 정리했습니다.</p> <p>두 번째, 이주여성인권센터 행사 지원의 경우, 저는 다다페스타 행사와 플리마켓에 참여했습니다. 다다페스타에서는 이주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부스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플리마켓은 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행사였는데, 물품 정리부터 판매까지 이주여성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p> <p>세 번째, 이주여성인권센터 홍보의 경우, 저는 이주여성인권센터 소속 기관인 이주여성쉼터를 알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쉼터는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분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방문해 쉼터의 상담사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쉼터가 어떤 곳인지, 쉼터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업로드했습니다.</p> <p>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읽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이주여성이 겪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의 활동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

**3. 활동소감**

<p>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관련 정책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배우며 이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주여성분들과, 그리고 활동가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쉼터를 방문해 상담사 분께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일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1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체류’의 중요성, 비자 문제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시던 상담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국에서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p>
---

**<2024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학생의 후기입니다>**

**1. 활동내용**

한국이주여성의 인권 신장 활동
시위 플랜카드 제작
카드 뉴스 제작을 위한 기사 스크랩
한국이주여성 활동 홍보 및 정보 공유
한국이주여성 플리마켓 보조 활동
한국이주여성쉼터 방문, 인터뷰
한국이주여성상담센터 질문지 제작, 인터뷰
한국이주여성센터 인터뷰
한국이주여성센터 보조 활동(서류 검토 및 확인)

**3. 활동소감**

<p>한국어 교육 전공자로서 ‘언어적 지식 전달’ 교육만을 알았고,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빠르게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증진시킬까’만을 고민해왔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가 되어 교육현장에서 만난 한국어 교육 수요자이자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비자를 얻기 위해서 한국어 실력이 입증되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취직을 위해 한국어 실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교실에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SNU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p> <p>처음 한국이주여성센터에 합격 소식을 접하고, 방문하게 된 날 저를 제외하고 학부생들이었으며 모두 ‘한국이주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원활동가분들을 뵈게 되었습니다. 그 때 ‘과연 나처럼 한국이주여성들의 삶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나의 몫을 해낼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지만 앞으로의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p> <p>기사 스크랩을 통해 한국이주여성들의 노동 인권 문제에서부터 거주 안전과 관련된 생존 직결의 문제들까지 다양한 사회 이슈적 문제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 카드 뉴스, 다양한 행사, 시위 활동들을 계획하고 보조 활동을 하며 참여함으로써 ‘나의 작은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p> <p>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이주여성을 보호하는 보금자리를 직접 보고,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며 인터뷰를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주여성들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했던 업무 관계자의</p>
---

차 번호를 보고, 거주지가 노출된 사례를 통해 ‘신중하고, 주의깊은 배려’가 업무 관계자로서, 협조자로서의 기본 바탕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한국이주여성들의 거주지, 생활권, 교육권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족한 나의 지식을 채울까, 전문성을 키울까에만 집중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태도’에 대해서 성찰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 안전함, 우선순위의 것을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동안 아쉬운 점은 플리마켓, 시위활동,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모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이주여성센터는 한국이주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자원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자원활동가로서 직접 경험하며 한국이주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학 기간 등 여유가 있을 때 다양한 외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추천드립니다.